광용 스님 "미래로 가는 비구니회" 염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이·취임
비구니 위상·권익 향상에 방점

참여·도약·미래 기치로 세워
12대 집행부 업적 계승 발전
"6000여 비구니 대변자 역할"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축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3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취임한 광용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13대 회장 광용 스님이 취임했다. 광용 스님은 '참여와 도약, 미래' 라는 가치 아래 비구니 승가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4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큰법당에서 '본각 스님·광용 스님이·취임법회' 를 봉행했다. 광용 스님은 이날 취임사에서 '참여와 도약, 미래' 를 목표로 비구니 승가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지난 4년간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12대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 스님은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비구니 승가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6000여 비구니스님들의 대변자로서 임기 동안 회관에 머물며 비구니 위상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사 이후 광용 스님은 본각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본각 스님은 이임사에서 12대 소임자와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참다운 수행자로 남기를 다짐하며 안심하고 떠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취임법회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종회의장 주경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 등이 참석했다. 비구니원로의장 수현 스님과 비구니 원로 명수 스님, 일법 스님, 혜운 스님, 적조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운·철우·혜도·정관·진상·법해·지인 스님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정청래 국회의원,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 등이 참석해 광용 스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비구니 승단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함께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광용 스님을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화합 승가의 본래 면목을 전 종도들에게 보여준 것이라 그 의미가 깊다"면서 "비구니스님들의 청정한 수행과 정진력, 광용 스님이 이끌어갈 전국비구니회의 화합된 모습이 종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비구니 원로의장 수현 스님의 격려사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유인촌 문체부 장관, 주호영 정각회장, 정청래 국회의원,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비구니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후원금도 이어졌다. 세계비구니협의회 부회장 화정 스님과 충북지회장 혜운 스님, 쿠무다문화재단 주석 스님, 13대 부회장 등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비구니회의 발전을 염원했다.

이날 취임법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기도 했다. 취임식 축하 화환 대신 나눔의 쌀을 보시 받은 광용 스님은 쌀 10㎏, 100포대와 1000만원을 서울 강남구청에 전달하고 이웃들의 따듯한 겨울나기를 염원했다.

제13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에서 "13대 소임자들은 6000여 비구니를 대표해 신심과 공심으로 비구니의 위상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선후배가 될 것을 선서한다"면서 "사회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고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중한 인연임을 깨달아 가며 부처님 가르침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바른 길임을 잊지 않고 정진하고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특별 인터뷰 5면〉

"안수정등 새겨 육바라밀 실천"

총무원장 진우 스님, 11월 13일 조계사 초하루법회 법문

육바라밀 중 '정진' 실천 당부
"업장소멸 위해 보다 노력해야"
부모·자식 간 전법 중요성 강조



한 나그네가 큰 불이 난 숲을 피해 달려 광야에 이른다. 한숨 돌릴 즈음 거대한 코끼리가 달려들기 시작하고, 나그네는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언덕 아래 우물을 발견해 뛰어든다. 등나무 넝쿨을 잡고 몸을 피신했지만 우물 밑바닥엔 독을 품은 이무기 3마리가 버티고 있고, 중턱엔 뱀 4마리가 혀를 날름거린다. 또 흰쥐와 검은 쥐는 나그네가 의지한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절체절명의 순간, 등나무에 매달린 벌집에서 달콤한 꿀물 다섯 방울이 떨어진다. 나그네는 죽을 위기에서도 꿀맛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잊고 만다.

〈불설비유경〉에 등장하는 안수정등 이야기다. 욕망 가득한 세상에서 탐진치 삼독심을 이겨내지 못한 채 오욕락에 취해 어리석은 삶을 사는 중생을 비유한 가르침이다. 초하루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대중설법을 통해 "안수정등 이야기를 새겨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13일 서울 조계사 초하루법회 법사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스님은 이날 육바라밀 수행덕목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가운데 '정진' 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무리가 겪는 걱정과 근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참선과 기도 등을 통해 성취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육바라밀 '정진' 에 대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과 맑고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정진으로 선정과 지혜를 갖춰야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업식을 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업장소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수정등' 의 비유를 들었다. 중생의 삶(나그네)은 욕망(불)으로 가득하고 윤회(광야)하는데 삼독(이무기)과 오욕락(꿀)에 빠져 위태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우리가 괴로운 건 우연이 아니다. 날씨가 추워서 힘들고,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어 괴롭고, 행인과 어깨를 부딪쳐 짜증나는 수많은 일은 인연 연기에 따라 생긴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며 "그 일들로 인해 일일이 속상해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면 스스로가 힘들어진다"고 부연했다.

사시불공을 비롯해 각종 기도에 동참하는 것도 업장소멸을 위한 방편임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조계사 신도님들 개인의 업장소멸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업장소멸도 필요하다. 혼자만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스스로 기도하면서 부모·자식에게 불법을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윤석열 정부 종교 편향 행보 경고"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 회의 거쳐 성명 발표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윤석열 정부가 기독교 편향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도, 법주사 주지)는 11월 14일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열린 제78차 회의를 통해 윤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데 이어 15일 이 같은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 장관에 개신교 인사는 다수인 반면 불교 인사는 손에 꼽는 점을 비롯해 대선 전 불교 관련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조계종 총무부 측은 "대통령실과 여당에 종단 입장을 설명했다"며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조계종 사부대중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문화유산분야 공약 내용과 국민통합 약속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내며 진정한 성공을 함께 기원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 6개월여가 지난 오늘 불교계에는 진한 실망만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전통사찰 관련 정책 법안 개정을 비롯해 예산 반영이 미진한 점을 짚었다. 더불어 문화재청 내 전담조직 신설, 사찰림 보존 등의 공약도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고, 공무원의 종교 편향 처벌 강화 역시 잇단 종교 편향 행보로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신교 주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정신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의 장·차관, 심지어 군 장성들까지 불자들을 배제한 역대 최악의 종교 편향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초의 종교편향 대통령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 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뉴라이트 인사들을 다시 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현 정부의 심각한 종교 편향 행보에 많은 불교계 사부대중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역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윤 정부의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종교 편향 행보가 지속될 경우 범불교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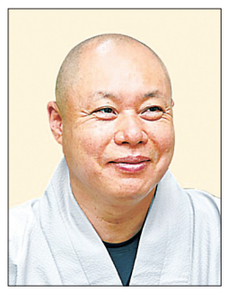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추천

11월 15일, 제1차 상임위원회의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법원 스님〈사진〉이 단독 추천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11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의' 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을 차기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추천했다. 회의는 위원 20명 중 18명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법원 스님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추천됐다.



법원 스님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6년 직지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조사국장, 선암사 직영사찰관리인,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제16~18대 3선 종회의원으로 현재 성남 정토사 주지다.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 취임 및 제55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 를 봉행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사찰고급연등
자동승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 치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010-5340-7941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자동 승 하강장치 설명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의 장점

1. 발원 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 보입니다.
3. 법당 내 구조와 면적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이며 사후관리도 책임집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 시공시 많이 하는 질문

시공사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성입니다. 시공전 현장 방문하여 현장 수치에 맞는 도면 작업 후 연등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현장에 맞는 수치를 계산하여 계산치의 최대 용량에 60%를 넘지 않도록 튼튼하게 시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